

헌신말고 효도하세요

본문: 요한복음 4:31-38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후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다 돌아와 예수님께 식사를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드린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육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1. 사명이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부분에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분명 육체적으로 지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져 있습니다.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새힘을 얻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지치고 소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하는 사명은 오히려 우리 영혼에 새힘을 공급합니다. 특히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과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중심적입니다. 타인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본성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전에는 없던 마음이 생겨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2. 지금이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당시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는 속담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구원의 일은 미룰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추수의 때이며,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준비가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성장한 뒤, 좀 더 정리된 뒤, 좀 더 여유가 생긴 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희어진 밭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기다리던 영혼들, 지쳐 있는 영혼들, 방향을 잃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 헌신말고 효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보통은 일을 먼저 하고 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값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신이 거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결국 자신의 인생이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헌신하면 복받을 것이라 기

대하고,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이나 성공이나 원하는 삶을 이루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 말고 효도하세요”입니다. 효도는 부모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잘해야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도 해가 된다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대하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내 인생을 책임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품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에 숟가락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더 헌신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자체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사명이 우리의 양식이 되며, 헌신이 감사의 고백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눌 질문

1.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인식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 ① 아버지
 - ② 직장 상사
 - ③ 거래 대상
 - ④ 무서운 심판자
 - ⑤ 멀리 있는 존재
2.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헌신 가운데 “대가성”이 섞여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3. 최근 내가 영적으로 가장 큰 새힘을 얻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4.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주변에서 품게 하시는 “희어진 밭”, “다가가야 할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5.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결과와 성공을 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6. 이번 주 나는 어떤 방식으로 “효도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